

# 서구청장 후보 1차 컷오프 통과 누구?

## 민주 내일 면접 통해 3명 압축... 경쟁률 4대 1 주목

민주당이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를 면접을 통해 3명으로 1차 압축한 뒤 시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 10여명의 후보가 난립한 상황에서 3명으로 압축되는 1차 '컷오프'를 통과할 후보가 누구일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공천심사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공천 서류접수를 한 뒤 25일 예비후보들을 상대로 면접(컷오프)을 거쳐 당내 본 경선에 참여할 3명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민주당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고재청 광주시장 부위원장 ▲김선

옥 전 광주시의원 ▲김성현 전 광주 시장 사무처장 ▲김종식 전 서구청장 ▲박급자 전 광주시의원 ▲신현구 민주당 정책위의장 ▲송갑석 전 전남 대총학생회장 ▲이정일 전 서구청장 ▲임우진 전 광주시행정시장 ▲조광향 전 광주시의원 ▲조용진 전 광주 시 기획조정실장(가나다순) 등 11명이다.

여기에 박해자 호남대 교수가 24일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어서 1차 면접대상 후보는 총 12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차 '컷오프'에만 4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1차 컷오프에서 예비후보들

간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원·당구에 따라 후보를 압축하는 서류·면접 심사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당 기여도와 정체성, 도덕성, 자질·능력, 당선 가능성, 면접 점수 등을 토대로 후보를 선정해왔다.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 1차 컷오프도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후보군은 대략 공직자 출신과 예정이어서 1차 면접대상 후보는 총 12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차 '컷오프'에만 4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1차 컷오프에서 예비후보들

예선을 통과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이 무소속 출마가 법적으로 가능해 1차 컷오프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무소속 출마 여부도 관심거리다.

민주당은 이 같은 1차 컷오프를 통해 3명의 후보로 압축한 뒤 TV토론회를 거쳐 시민과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빠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내달 1일까지 최종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반영 비율은 시민과 당원 각 50%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최종 후보를 선출하면 비민주당 4당 단일후보, 무소속 후보 등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는 최소한 2~3파전으로 전개돼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10·27 재선 현장

### 박해자 교수, 서구청장 재선거 출마

박해자 호남대 교수(인문사회과학대 학장)가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다. 박 교수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서구청장 후보는 경륜, 젊음과 함께 섬세하고 헌신적으로 지역을 이끌 수 있는 '창조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광주 서구를 생활정치가 숨 쉬는 행복 공동체로 일구 나가겠다"며 서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 교수는 24일 오전 예비후보등록과 함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구청장 재선거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편, 박 교수는 개방형 직제인 전남도 복지 여성국장을 2차례 역임했고, 방송 시사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 임우진 "공천기준, 도덕성 반영돼야"

임우진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후보선출방식을 환영한다"면서, "10·27 재선거는 서구민의 상치를 치유할 수 있는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 그리고 도덕성과 전문성이 공천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예비후보는 "지금 서구는 분열과 반목, 갈등으로 편 가르기, 서로 것을 빼앗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생협력하는 '윈윈 게임'이 절대 필요한 시기"라며 "민주당 성지인 광주정신으로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용진, 광역위생매립장 감사패

조용진 민주당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23일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조 예비후보 측은 따르면 광역위생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1998년 조 실장이 광주시 폐기물관리과장 시절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방식을 통해 주민기피시설인 광역위생매립장 입지를 선정하는 등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주변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해 준 데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다.

### 송갑석 "미래지향적 후보 공천해야"

송갑석 민주당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석 연휴 기간 관내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 본 결과 그동안 서구에서 16년 동안 행정이 출신들로만 서구청장을 역임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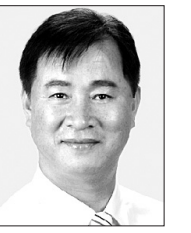
다"라며 "변화없는 민주당의 안이한 공천은 돌이킬 수 없는 참사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송 예비후보는 "이번 10·27 재·보궐선거는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 1곳,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3곳에서만 치러지는 미니선거이기에, 결국 모든 관심은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로 집중될 것"이라며, "젊고 개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후보가 공천되어야만 비민주당 단일후보와의 1대 1 구도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고재청, 민심 잡기 광폭 행동

고재청 민주당 서구청장 재선거 예비후보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양동시장 등 재래시장과 양로원 등을 방문하며 바다 민심 청취에 집중했다.



고 예비후보는 추석 연휴 기간 중 서구 관내 각 양로원을 찾아 어르신을 위로하고 '일하는 복지정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환담을 하고 양동시장을 찾아 서민물가 등 서민경제 어려움을 청취하고 위로했다. 이어 고후보는 관천터미널을 찾아 귀향객들을 만나며, 민심 잡기에 열을 올렸다.

### 김선옥 "순환형 기부 추진할 것"

김선옥 민주당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시민이 시민을 돕는 '순환형 기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시 남구에 한 곳뿐인 '한 부모 가족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자체 예산 32억 원의 사업재원을 확보하여 정원 20세대 60명 규모의 모·부자 복지시설을 신축하겠다"며 "시민이 시민을 돕는 '순환형 기부'를 위해 지역별로 거점기관(병원, 학원, 미용실 등)을 선정, 운영함으로써 지역 내 소외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종식 "공정한 경선 심사되어야"

김종식 서구청장 예비후보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앙당과 광주시당이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가장 큰 규모의 선거인 서구청장 재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선 경쟁력을 가진 후보가 공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추석 연휴 기간 관내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해 본 결과 그동안 서구에서 16년 동안 행정이 출신들로만 서구청장을 역임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해남 오시아노 관광단지 매출원가 오류"

## 감사원 "한국관광공사 순익 130억 과다 계상"

한국관광공사가 해남군 일원에 조성 중인 해남오시아노관광단지의 골프장 매각 때 매출원가를 잘못 산정해 당기 순이익이 130억원 가량 과다 계상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결산감사 결과, 공사측이 골프장 조성원가를 직접원가 140억원만 계

산하고 기부채납해야 할 녹지와 에너지 공급시설 등 공공시설 투입 원가를 유상매각 대상 시설에 배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 결과, 골프장 매각으로 12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오히려 이익이 9억원 난 것으로 회계처리됐다.

한국관광공사는 또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과다계상으로 사내복지

기금 2억6000여만원을 과다 출연했으며, 법인세 등도 31억6000만원 상당을 과다 납부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관광공사 사장에게 과다 계상된 순이익 등 회계 오류를 수정하는 한편, 과다 출연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차감하고 관할 세무관서에 과다 납부한 법인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경정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이산가족상봉신청자

### 한달 259명꼴 사망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올해 들어 한 달에 259명 꼴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통일부에 따르면 198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정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모두 12만8129명이며, 이 가운데 올해 7월31일 현재 기준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달에 259명 꼴로 숨진 셈이다.

또 전체 신청자 가운데 지난 7월31일까지 사망자는 4만4444명으로 사망률이 34.69%에 달했다.

이산가족 신청자의 사망률은 지난 2003년 15.9%에서 2005년 21.5%, 2007년 26.3%, 2008년 30.6%, 2009년 32.9% 등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간이 갈수록 고령자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달 말 현재 생존한 8만3684명 가운데 70대 이상 고령자는 77.2%(90세 이상 5.6%, 80~89세 35.0%, 70~79세 36.6%)에 이르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의 사망률은 앞으로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 北 "당대표자회 28일 개최"

## 강석주 부총리 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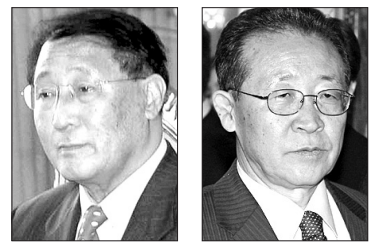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준비위원회는 애초에 '9월 상순'으로 예고했던 44년만의 당대표자회를 오는 28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준비위는 "조선노동당 인민군대표회, 도(정치국) 대표회에서는 김정일 동지를 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했다"며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조선노동당대표자회는 28일 평양에서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대표자회가 연기된 이

유 등에 대해서는 일설 언급하지 않았다.

준비위는 "대표회에서는 혁명적 대고조의 전투장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발휘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일꾼들이 대표로 선거됐다"면서 "대표회들은 김정일 동지를 중심으로 한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 한 번 힘있게 과시했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한편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의 핵협상과 대미외교를 도맡아온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23일 최고인민회의



강석주 부총리 김계관 제1부상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내각 부총리에 임명됐다고 전했다.

또 '6자회담' 북한 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외무성 제1부상에, 6자회담 북한 측 차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참사도 외무성 부상에 각각 임명됐다.

이번 조치로 북한 외무성의 대미외교라인이 모두 승진하게 됐다. 연합뉴스

http://www.hankooktea.co.kr

#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감송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各種 유기능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업선된 名인의 차탄 납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식품명인지정서

제정일자: 2009.08.27

제정처: 농림수산식품부

2009년 08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제품문의 · 광주 차생원 :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 062)510-7040 · 목포 차생원 :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 02)730-2983 · 부산 차생원 : 051)256-7007-8